

# 中, 내달 8일부터 입국 후 시설격리·PCR 검사 폐지

## 코로나19 방역등급 갑→을 하향...공식명칭서 '페렴' 삭제 고위험군 백신 제2차 접종 강화...입원 병상 등 준비 증점

중국 정부는 또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가일층 높이고, 중증 고위험군에 대해 백신 제2차 강화 접종(부스터샷)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입원 병상과 중증자 병상 준비를 중점적으로 하기로 했다.

중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시행해온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내달 8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와 국무원 합동방역기구 등 방역 당국은 내달 8일자로 코로나19에 적용해온 최고강도 '갑(甲)'류 감염병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으며 출입국 관련 방역 최적화 조치로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중국 정부 규정상 해외발 입국자는 5일 시설격리에 3일 자가격리 등 8일간 격리를 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 해외발 중국 입국자는 지정된 호텔 등 별도 격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일정기간 재택 격리 또는 건강 모니터링만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정부는 중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에 대한 방역 관련 요구 사항도 간소화했다.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 결과가 있으면 입국이 가능하며, 출발지 소재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건강

코드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 해외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후 PCR검사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국 후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 신고와 일반적 검역 절차에서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중국 사회에 발을 들일 수 있다고 중국 당국은 밝혔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 '갑'류 관리를 해제하는 동시에 '을(乙)'류 관리 시스템을 적용기로 했다.

중국은 2020년 1월 코로나19를 감염병에 방법 규정상 '을류' 감염병으로 규정하면서 방역 조치는 '갑류'에 맞춰왔는데, 내

년 1월8일부터는 감염병 등급 규정 및 관리 수준 모두 '을류'로 하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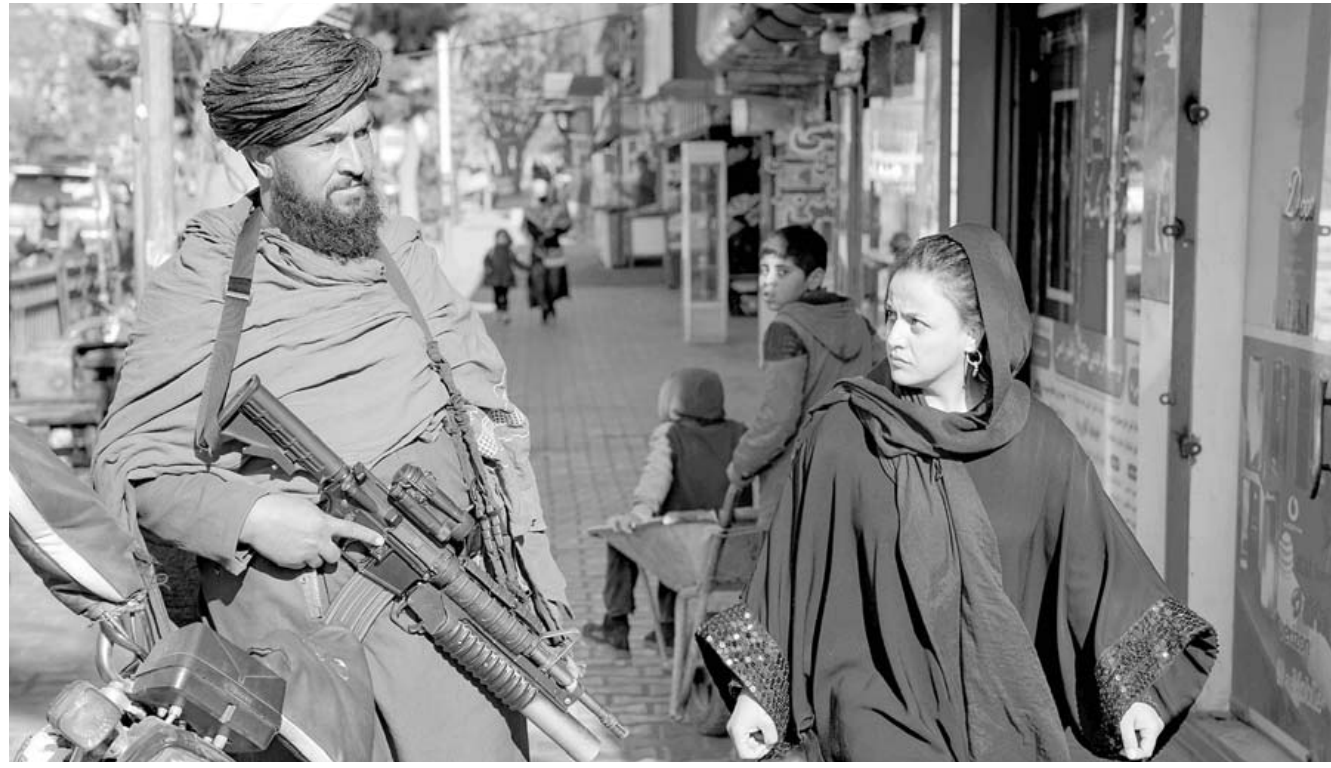
이에 따라 내달 8일부터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며, 밀접 접촉자 판정도 하지 않는다. 또한 감염 고위험 또는 저위험 지역 지정을 하지 않으며, 입국자 및 화물에 대해 '감염병 검역 관리 조치'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공식 명칭을 '신형 코로나형 바이러스 페렴'에서 '신형 코로나형 바이러스 감염'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정식 명칭에서 '페렴'을 뺀 이유에 대해 "(2020년) 초기 감염 사례 대부분에서 폐렴 증세가 있었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주종이 된 이후 극소수 사례에서만 폐렴 증세가 있다"며 변경된 명칭이 현재 질병 특징과 위험성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또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가일층 높이고, 중증 고위험군에 대해 백신 제2차 강화 접종(부스터샷)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입원 병상과 중증자 병상 준비를 중점적으로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탈레반 군인 옆 지나가는 아프간 여성** 26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한 여성이 총을 든 탈레반 무장군인 옆을 지나가고 있다. 최근 아프간 탈레반 정권이 여성들의 대학교육 및 비정부기구(NGO) 활동을 금지하자 주요 도시에서는 항의시위가 잇따랐다. 특히 카불에는 검문소가 더 설치되고 무장차량과 탈레반 특수부대원들이 추가로 투입되는 등 불안이 강화됐지만, 탈레반 정권은 보안 강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AP=연합뉴스

## 스웨덴 부부, 러시아 스파이 혐의로 체포

### 獨서 암약한 러 이중간첩, 우크라 정보 빼돌린 듯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 러시아 간첩의 적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스웨덴에서 또 러시아 출신 부부가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달 말 스톡홀름 교외 나카의 자택에서 전격 체포된 이 부부는 10년간 스웨덴과 미국에 대한 '불법 정보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997년 스웨덴으로 이주해 약 15년 만에 스웨덴 국적을 취득한 이 부부에 대해 이웃들은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부부"라고 전했다.

부부는 선박과 항공기용 IT 및 전자

장비를 수출입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하는 회사 수 개를 운영하며 연간 약 3천만 크로나(약 36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스톡홀름에서 학교에 다니는 20세 아들 둔 부부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오페라 극장 '라 스칼라'나 노르웨이 스키 휴가지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는 등 한때 러시아 소셜미디어의 활발한 이용자이기도 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2013년 미국과 스웨덴에 대한 간첩 활동을 시작한 이 부부가 처음 스웨덴 당국의 주목을 받은 것은 2016년 회사 중 한 곳이 세금을 체

납하면서다.

이 회사의 이름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지난 6월 작성된 스웨덴 국방기관 보고서에도 등장했다. 스웨덴에서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에 관련된 것으로 식별된 75개의 목록을 담은 보고서다.

이 회사는 옛 소련의 은퇴한 외교관이자 간첩 혐의로 프랑스에서 추방된 적 있는 러시아군 정보기관 총정찰국(GRU) 출신 인사가 소유한 사이프러스 소재 회사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드러나 조사관들의 의심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부부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스웨덴과 외국 국가에 반하는 불법 정보 활동을 조장한 혐의"로 남편의 구금을 명령하는 한편, 공범으로 의심되는 부인은 심문 도중 석방됐다. 둘 다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젤렌스키 “전기 끊긴 주민 900만명”

### 에너지부 장관 “신년 앞두고 러 대규모 공격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력 시설에 대한 러시아군의 집요한 공격 이후 한겨울 전기 없이 생활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900만 명에 이른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심야 연설에서 “오늘 저녁 우크라이나의 각기 다른 지역에서 거의 900만 명은 전기가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총 인구 약 4천100만 명 가운데 4분의 1가량은 전기 없이 생활하는 셈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구가 상당 부분 진행되면서 일부 지역에는 크리스마스 전 전력 공급을 재개했다면서도 “전력 부족이 계속되고 정전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력 복구 작업을 서두르면서도 러시아가 연내에 대규모 공격을 다시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헤르만 할루센코 우크라이나 에너지

부 장관은 이날 자국 방송 인터뷰에서 올해 마지막 날 러시아가 순항미사일 등으로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할루센코 장관은 “러시아는 에너지망 공격을 포기하지 않았다. 저들이 아마 어떤 날짜를 공격 날짜로 정하고 있을 텐데, 새해 첫날이 그 날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새해 기념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러시아군이 이 행사를 망치려고 올해 마지막 날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근 최대 격전지가 된 동부 도네츠크주 소도시 바흐무트의 전황에 대해서는 “상황이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바흐무트, 크레민나 등 다른 돈바스 지역은 최대한의 힘과 집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자국민의 응원을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점령군(러시아

군)은 어떤 형태로든 전진하겠다는 보류한 모든 자원을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진 자원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바흐무트는 동부 돈바스 지역의 요충지다. 이곳을 확보하면 우크라이나 동부와 러시아를 잇는 보급선을 차지할 수 있다. 한동안 수세에 몰렸던 러시아군은 이곳에 반격을 집중하며 반전 기회를 노리고 있다.

우크라이나군도 밀리지 않기 위해 이 지역에 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도 우크라이나군 참모모부는 러시아군의 반격을 격퇴했다고 밝혔다.

참모모부는 또한 이날 포병 공격으로 루한스크 인근의 소도시 폴로빈키에서 러시아군 장비 150명을 제거하거나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참모모부는 또 헤르손에서도 포병 공격으로 러시아군 50명을 없애고, 100명에게는 부상을 입혔다고 말했다.

독일 DPA통신은 참모모부의 발표 내용을 전하면서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테슬라 상하이 공장 연말 9일간 생산 중단...이례적”

### 당초보다 하루 더 늘어...코로나 확산·중 수요부진 탓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 24일부터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중단에 들어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소식통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하이 공장은 당초 25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공장 가동을 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하루가 더 늘어났다. 공장과 부품 공급업체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설 연

휴와 여름 휴가 기간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드물지 않지만, 테슬라는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모든 라인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부터 새해 1월 1일까지 이어지는 공장 가동 중단이 그동안의 테슬라로서는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테슬라는 그동안 충분한 재고를 쌓아 이번 9일간의 생산 중단이 주문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들은 전했다.

테슬라는 올해 상하이 공장의 생산 능력을 연간 75만 대 이상으로 늘렸다.

그러나 지난 두 달 동안 중국 자동차 시장이 부진해지면서 자동차 수요가 예상보다 감소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테슬라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국의 테슬라 구매자들은 대기 시간이 최대 5배 길었던 9월에 비해 단속돼 현재는 4주 안에 새 차량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로이터 통신도 상하이 공장 내부 공지문과 소식통 2명을 인용해 12월 마지막 주 휴업 계획을 앞당겨 24일부터 생산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